NH Morning Briefing

NH투자증권

Today's Report Daily | 2023. 3. 24

주식전략/경제

-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전략** ..... 김영환/안기태/권아민
- **디지털 자산:** NH Digital Asset Weekly - 리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 홍성욱

채권전략

- **EM Bond Market Issue Comment:** 브라질(BB-): 금리동결보다 중요한 화해의 제스처 ..... 전병하

산업/기업분석

- **통신서비스산업 (Neutral하향):** 규제의 먹구름 ..... 안재민

  SK텔레콤 (Buy유지/TP:60,000원하향): 안정적인 통신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신성장

  KT (Buy유지/TP:38,000원하향): 불확실한 상황의 지속

  LG유플러스 (Buy유지/TP:13,000원하향): 통신이냐? 비통신이냐?
- **손해보험 (Positive유지)/생명보험(Neutral유지):** IFRS17 Update: 여전히 높은 기대감 지속 ..... 정준섭

NH Morning Briefing은 당사 Research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상 투자의견이 제시된 기업 중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NH투자증권은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주식전략/경제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전략

김영환/안기태/권아민 (02-768-7677)

원문보기

- **주식시장 Preview: 뉴스플로우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장세 예상**
  - KOSPI 주간예상: 2,300~2,450P
    - **상승 요인:** 금융리스크에 대응한 정부 · 중앙은행의 유동성 주입 정책, 중국 리오프닝/경기부양 기대감
    - **하락 요인:** 은행 위기 확대 가능성, 실적 하향조정 지속
    - **미국 은행시스템 불안과 연준의 통화정책:**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 파월 의장은 금리를 동결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높다고 설명했으며, 은행 시스템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 이후 이틀 연속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은행권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모습. SVB 사태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일부 은행의 자산부채관리(ALM) 전략 실패 때문. 글로벌 및 국내 주요 대형 은행의 경우 자산 다변화 수준이 양호하고 예금도 안정적. 유로존 또한 재정 건전성, 정책 스탠스 등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개선. 과거 경험을 통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금융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잘 학습. 금융리스크가 넓은 범위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이번 사태는 시스템 리스크보다는 향후 여타 자산군 간, 혹은 주식시장 내 업종 · 종목간 차별화를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최근 SVB 사태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금, 미국 Mega-cap Tech는 상승. 전통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 · 금을, 기존 방어주 대신 현금이 많고 성장성이 담보된 대형 우량주(Mega-cap Tech)를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 '현금이 많고 성장성이 담보된 기업'들과 '하이일드 기업 · 흑자전환 구간에 진입하지 못한 스타트업' 간의 차별화 진행 예상
    - **투자전략:** 향후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는 4월 첫째주 1분기 어닝시즌 개막와 월초 경제지표 발표(4/2 한국 수출입, 4/3 ISM 제조업, 4/7 미국 고용). 다음주 중에는 당면한 대형 이벤트는 없음. 시장은 미국 은행권 사태의 진행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미국 기준금리의 향후 궤적에 대한 설왕설래를 지속할 것
    - KOSPI 12개월 EPS는 바텀 라인을 형성 중. 반도체 제외 KOSPI 12개월 EPS는 반등. 하지만 KOSPI 내 이익 비중이 높은 반도체의 12개월 EPS가 여전히 하락 중. 1분기 기업실적의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규모. KOSPI 전체 12개월 선행 EPS 반등을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 실적 추정치의 개선이 관건. 적자 기록하는 경우 공급 축소 발표가 발표될 수 있고, 이는 곧 실적 저점 전망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은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일부 분야(2차 전지 등)로의 수급 쏠림 심화임. 탑다운 관점에서 통화 정책 및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구조적 성장 및 정책 수혜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 일부 업종으로 단기 집중된 쏠림은 장기간 지속되기보다는 일정 수익 구간이 지나면 통상 대안을 찾는 것이 경험적인 수순. 2차 전지 외에도 경기 개선의 강도와는 무관하게 탑라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분야, 상대적 저평가 업종 중 예정된 모멘텀이 존재하는 업종에 관심 가질 필요
    - **밸류에이션:**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12.9배(2005년 이후 분포의 상위 5%), 12개월 후행 PBR은 0.92배(2005년 이후 분포의 상위 91%)
    - **관심 업종:** 철강/비철금속, 화장품/의류, 신재생
    - **주간 주요 이벤트(한국시간):** 유로존 3월 마킷 PMI(잠정치, 3/24), 미국 2월 내구재 수주(3/24), 미국 1월 S&P/CS 주택가격지수(3/28), 미국 4분기 GDP(확정치, 3/30), 한국 2월 산업활동동향(3/31), 중국 3월 국가통계국 PMI(3/31), 미국 2월 PCE물가(3/31)

- **경제 Preview: 성장과 비용, 함께 부담**
  - 4월 1일(토요일) 발표되는 3월 한국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 기록할 전망. 중국 1~2월 재화소비(소매판매) 물량이 별다른 변화가 없음. 중국 경제 재개방은 주로 서비스부문 소비에 집중되면서 한국 수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 3월 31일(금요일) 발표되는 중국 3월 국가통계청 PMI는 재차 하락할 가능성 높아 보임. Re-Opening 이후에 경기를 끌어올린 만한 이벤트가 없는 것으로 파악
  - 이 와중에 특이한 것은 미국 10년물 금리임. 미국 3개월물 금리와 2년물 금리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연내 전저점 아래로 내려간 반면, 10년물 금리는 그렇지 않음
  - 정확한 이유는 파악이 어려우나, ① 중국과 일본의 미국 국채보유잔액이 감소했고 QT(양적축소)의 결과 Fed의 보유국채도 감소한 점 등이 영향이 있고 ② 10년물 금리에 장기 성장과 장기 인플레이션이 모두 반영된다는 점에서 장기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나, 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와중에 비용(금리)이 떨어지는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저비용이 다시 성장을 부양하는 상황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

- **FX Preview: FOMC, 그 이후**
  - **원/달러 환율 주간 예상 밴드: 1,260원~1,320원**
    - 3월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25bp의 금리인상이 단행.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공히 하향 조정된 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상향 조정. 연준은 SVB 파산 이후 유동성 공급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나선 것과 별개로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상된 베이비스텝 금리 인상은 달러화 약세 재료로 소화. 달러/엔 환율 역시 130선까지 하락하며 엔화 가치는 한 달반래 최고치 기록중. 현재 엔화 가치와 VIX, 엔화 가치와 미-일 2년 금리 차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64, 0.95. 은행 위기 확산에 따른 리스크 오프보다 금리 차가 핵심
    -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bp로 확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높은 금리 레벨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및 부동산 시장 부진에 국내 소비 여력도 제한될 전망. 이에 당사 채권뷰는 한국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와 4분기 한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판단. 다만 한국의 내외 금리차 확대가 곧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약세로 이어지지는 않음. 오히려 내수보다는 수출이 환율과 궤를 같이 함(그림 참조). FOMC 이후의 환율 급락에 따른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연중순까지 추가 환율 하락이 전망

디지털 자산

홍성욱 (02-768-7657)

NH Digital Asset Weekly – 리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원문보기

크레디트스위스가 UBS에 긴급 합병되며 은행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에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 이어짐.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은 은행시스템 노이즈 지속 여부가 결정할 것

- **리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 XRP(리플)은 리플랩스에서 발행한 디지털자산으로 국제 송금 솔루션에 활용됨(리플랩스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송금자가 XRP를 매수한 후 수취인에게 XRP를 보내면 수취인이 XRP를 다시 매도하는 원리로 활용됨). 중앙화 이슈가 있지만, 빠르고 비용이 낮으며 금융기관 및 개인 상대로 서비스 제공 중
  - 2020년 12월 시작된 미국 SEC와의 소송으로도 유명하며,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별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 결과에 시장이 집중하고 있음
- **SEC와의 소송 현황**
  - 미국 SEC가 리플랩스의 XRP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소송 제기. 소송은 지지부진했으나 2022년 9월 빠른 판결을 위해 리플랩스와 SEC가 약식판결을 법원에 요청. 리플랩스 CEO는 2023년 중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며 상반기 중에 판결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 유사한 소송들을 참고해볼 때 1) 리플랩스가 XRP를 발행하고 판매한 것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지, 2) XRP 자체도 증권이라고 판단될지가 중요하다는 판단. 또한 3) 리플랩스의 사업 영위에 차질이 생기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 또한 XRP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기 이벤트에 의한 가격 변동성 유의**
  - 지난 9월 리플랩스와 SEC가 약식판결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XRP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 이번에도 곧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다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도 있음. 다만, 판결이 상반기에 나오지 않거나 판결 결과가 불리하다면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도 가능
  - 또한 장기적으로 XRP의 가격이 우상향하려면 리플랩스의 성장이나 XRP의 활용성 제고 필요

채권전략

EM Bond Market Issue Comment

전병하 (02-768-7850)

브라질(BB-): 금리동결보다 중요한 화해의 제스처

원문보기

브라질 중앙은행은 13.75%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지속 제기되며 시장 기대보다 매파적. 그러나 최근 재정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신 재정준칙 도입 이후 통화정책 스탠스 전환을 기대하게 함

- **대외 압박 지속 가운데 5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13.75% 유지**
  - 3월 브라질 통화정책회의는 2022년 8월 기준금리를 13.75%로 설정한 이래 7개월간 5번의 회의에서 연속 기준금리를 유지. 룰라 대통령 등 정치권은 꾸준히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으나 지난주 Campos Neto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를 의식하는 코멘트를 남겨 이번 금리 동결은 예견된 이벤트라고 판단됨

- **중앙은행이 보인 화해의 제스처**
  - 한편 중앙은행은 최근 유류세 재도입에 대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음. 이는 현재 시장이 대기중인 신 재정준칙에 대해 중앙은행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 Haddad 재무장관이 상하원 의장과 신 재정준칙의 내용을 논의했는데 이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음을 고려한다면 4월 초 재정준칙 공개 이후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와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장 금리는 점진적 하락세 이어갈 것**
  - 브라질 채권시장 금리는 전일 미국 시장의 금리 급락세의 영향으로 하락. 기준금리 동결기간이 길어지며 점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 재정준칙 공개 이후 정책 스탠스 전환이 기대되는 만큼 시장 금리의 점진적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함

산업/기업분석

통신서비스산업 (Neutral하향) 투자의견 하향

안재민 (02-768-7647)

규제의 먹구름

원문보기

통신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형국. KT의 CEO 선임이 여러 차례 무산되었고, SK텔레콤은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였는데 나머지 2사도 곧 출시할 예정. 상반기로 예상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가능성 등 통신서비스를 둘러싼 규제는 상반기까지 계속될 전망

-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 증가**
  -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Neutral로 하향. 통신서비스 산업에 대한 여러 규제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KT CEO 선임과 관련된 불확실성,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가능성, 중간 요금제 출시 등 통신주를 둘러싼 센티먼트가 좋지 않은 시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관련 불확실성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 전망
  - 또한, 아직 기준금리가 높아 배당주로서 통신사의 매력도 높지 않은 부분도 존재. 이를 감안하여 통신주에 적용하고 있던 Valuation을 일괄적으로 하향하여 목표주가를 조정하였고, 통신주 Top-pick은 SK텔레콤으로 변경
- **KT의 CEO 선임 과정에서의 잡음과 중간 요금제 출시**
  - KT의 CEO 내정자인 윤경림 사장이 사퇴하면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 지난해 말부터 구현모 대표의 연임 반대로 시작된 CEO 인선의 불확실성이 최소한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 다른 외부 인사나 통신 비전문가가 CEO로 선임될 경우, 기존 KT의 경영 연속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대주주 부재로 인한 우려가 향후 3년마다 부각될 수밖에 없음
  - SK텔레콤은 월 5.9만원과 6.9만원 사이의 중간 요금제 4종을 출시하며, 정부의 통신 요금 인하 압력에 대응함. 이외에도 청년요금제와 어르신 요금제도 추가로 공개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도 동시에 진행.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전체 실적 측면에는 소폭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일부 사용자의 요금제 Up-selling 효과를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유사한 요금제를 조만간 출시할 전망

통신서비스업종 투자의견/투자지표

(단위: 원, 배, %, 십억원)

종목명	코드	투자의견	목표주가 (12M)	현재가	PER		PBR		ROE		순차입금	
					2023E	2024F	2023E	2024F	2023E	2024F	2023E	2024F
SK텔레콤	017670.KS	Buy(유지)	60,000(하향)	47,800	9.6	8.8	0.9	0.9	9.4	9.9	5,692	5,297
KT	030200.KS	Buy(유지)	38,000(하향)	30,050	5.9	5.5	0.4	0.4	7.8	7.9	7,333	7,423
LG유플러스	032640.KS	Buy(유지)	13,000(하향)	10,960	7.0	6.5	0.6	0.5	8.2	8.5	5,114	4,763

주: 3월 23일 종가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당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손해보험 (Positive유지) / **생명보험** (Neutral유지) **Update**

정준섭 (02-768-7835)

IFRS17 Update: 여전히 높은 기대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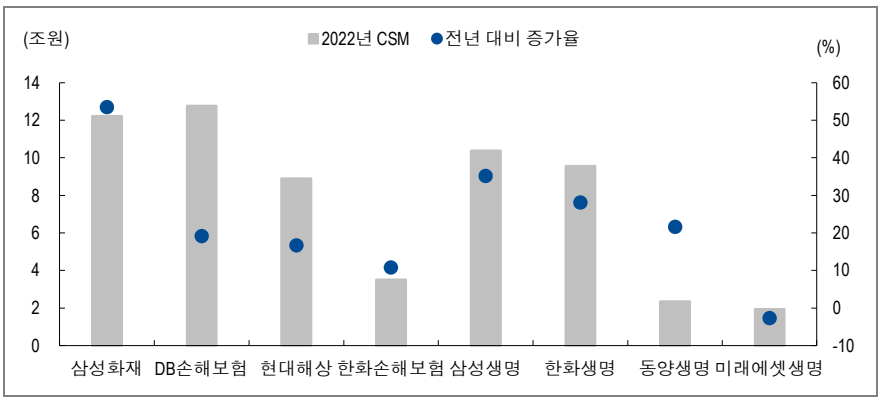
원문보기

주요 보험사 2022년 IFRS17 약식 재무제표 공시. 향후 보험사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은 CSM이 될 전망

- **IFRS17 약식 재무제표 공시, CSM 재확인**
  - 커버리지 보험사 IFRS17 약식 재무제표 공시.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1) 2021년말, 2022년말 계약서비스마진(CSM), 2) IFRS17 기준 2022년 자기자본과 이익 확인 가능(단, IFRS9 적용 이후 자본, 이익은 변동 예정)
  - IFRS17 전환 이후 보험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자기자본+CSM'이 될 전망. 과거 EV(=ANW+VIF)와 유사한 개념. 순자산 가치와 보험계약 가치의 합산으로 보험사의 기업가치를 설명
  - 아직 IFRS9 적용 전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상장 보험사의 'P/(자기자본+CSM)'은 전부 0.5배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특히 2위권사가 더 저평가되어 있어서, 향후 가정의 합리성이 검증된다면 2위권사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전망

- **여전히 접근하기 편안한 건 손해보험**
  - 여전히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이 접근하기 편안함. IFRS17 전환 이후에도 신계약 마진, 이익과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K-ICS비율의 금리 민감도 측면에서 생명보험 대비 우위에 있기 때문. Top Pick 현대해상, 차선호주 DB손해보험 제시
  -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생명보험도 투자 매력 존재. 밸류에이션 저평가에, CSM 증가 기대도 높음. 신계약 경쟁력 검증, 주주환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면 생명보험주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점차 부각될 전망

주요 보험사 2022년 IFRS17 C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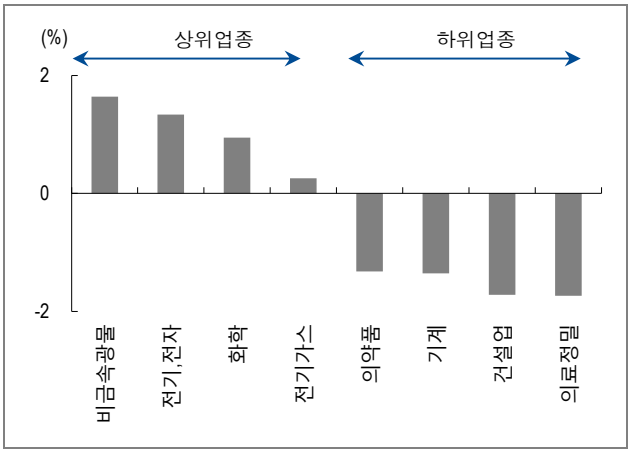
주: 연결 기준; 자료: Dar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당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Domestic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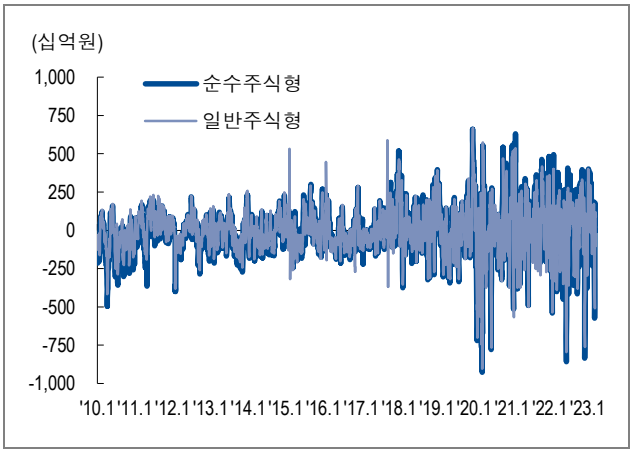
		Index					Performance/Spread			
Trading Summary		23-Mar	22-Mar	21-Mar	20-Mar	17-Mar	1Day	1Week	1Month	1Year
거	주가지수(P,%)	2,424.48	2,416.96	2,388.35	2,379.20	2,395.69	0.31	1.96	-1.40	-11.36
래	거래량(백만주)	568	501	355	346	364	66	170	151	-3
소	거래대금(십억원)	10,367	7,890	7,269	6,073	8,617	2,477	2,203	2,130	2,051
코	주가지수(P,%)	812.19	813.43	802.53	802.20	797.39	-0.15	3.86	2.37	-12.72
스	거래량(백만주)	1,177	1,117	1,063	1,098	1,146	60	52	41	151
닥	거래대금(십억원)	17,941	12,635	11,842	11,522	14,409	5,306	4,259	6,339	10,888
투자자별순매수(순매도)										
거	외국인(십억원)	213	203	-55	-208	74	213	226	-1,784	4,771
래	국내기관(십억원)	215	143	114	107	82	215	660	449	-8,882
소	개인(십억원)	-412	-347	-84	90	-174	-412	-928	1,006	2,221
코	외국인(십억원)	106	38	-165	-33	160	106	107	-667	-1,043
스	국내기관(십억원)	71	70	-15	-60	102	71	168	-1,940	-4,250
닥	개인(십억원)	-170	-74	195	131	-243	-170	-161	2,825	8,029
주: 투자자별순매수의 Performance/Spread는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순매수										
Market Indicators										
	3년만기 국고채(%,%P)	3.21	3.28	3.29	3.26	3.42	-0.08	-0.19	-0.42	0.78
	3년만기 회사채(AA-)(%,%P)	3.97	4.01	4.02	3.99	4.11	-0.04	-0.13	-0.35	0.90
	콜금리(%,%P)	3.45	3.43	3.46	3.48	3.43	0.02	0.01	0.06	2.32
	시가총액(조원)	2,296	2,291	2,264	2,257	2,268	5.24	50.61	-17.83	-261.37
	원/달러 환율(원,%)	1,278.30	1,307.70	1,311.20	1,310.10	1,302.20	-2.25	-2.64	-1.36	5.31
	원/100엔 환율(원,%)	994.94	988.62	996.00	987.09	983.40	0.64	1.76	3.10	-1.27
증시주변자금										
	고객예탁금(십억원)	-	46,333	47,225	46,253	46,326	-	-60	133	-15,253
	미수금(십억원)	-	239	207	195	199	-	-2	56	9
	신용잔고(십억원)	-	17,911	17,791	17,807	17,661	-	137	729	-3,632
	순수주식형수익증권(십억원)	-	95,063	95,063	94,964	95,184	-	236	-2,359	374

Daily Sector Performance



자료: KRX

Domestic Equity Fund Flow



자료: AMAK, Zer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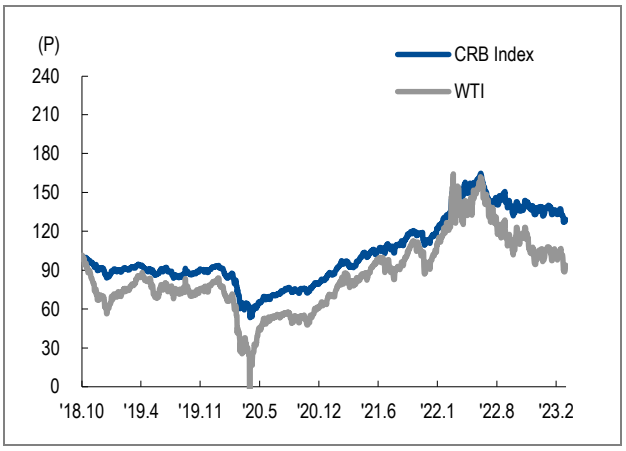
Global Market

		Index					Performance/Spread			
해외주요증시		23-Mar	22-Mar	21-Mar	20-Mar	17-Mar	1Day	1Week	1Month	1Year
미국	NASDAQ(P,%)	11,787	11,670	11,860	11,676	11,631	-0.61	0.60	0.00	-14.82
	S&P500(P,%)	3,949	3,937	4,003	3,952	3,917	-1.35	-0.29	-3.20	-11.49
	Dow Jones(P,%)	32,105	32,030	32,561	32,245	31,862	-1.40	-0.44	-5.09	-7.08
유럽	영국(P,%)	7,500	7,567	7,536	7,404	7,335	-0.49	1.21	-6.42	0.77
	독일(P,%)	15,210	15,216	15,195	14,933	14,768	0.10	1.63	-1.73	6.17
아시아	일본(P,%)	27,420	27,467	26,946	26,946	27,334	1.76	1.51	-0.41	2.21
	대만(P,%)	15,864	15,760	15,513	15,420	15,453	2.26	4.22	2.01	-9.66
	중국(P,%)	6,836	6,640	6,550	6,470	6,616	4.38	5.46	-3.22	-5.63
	인도(P,%)	57,925	58,215	58,075	57,629	57,990	-0.26	0.50	-4.56	1.10
라틴	멕시코(P,%)	52,828	52,550	52,653	51,926	51,926	0.33	0.61	-2.00	-4.76
	브라질(P,%)	97,926	100,221	100,998	100,923	101,982	-3.04	-5.33	-10.30	-15.69
국제금리 및 환율										
금리	미국채 10년(%,%P)	3.43	3.43	3.61	3.48	3.43	-0.18	-0.15	-0.39	1.14
	스프레드(10년-2년) (%,%P)	-0.41	-0.50	-0.56	-0.49	-0.41	0.15	0.17	0.40	-0.58
환율	엔/달러(엔,%)	130.85	131.44	132.51	131.32	131.85	-1.25	-2.16	-2.53	9.53
	달러/유로(달러,%)	1.08	1.09	1.08	1.07	1.07	0.59	2.08	1.36	-1.68
국제 원자재 가격										
	CRB Index(P,%)	258	259	258	255	255	0.04	0.44	-3.66	-13.95
	WTI ($/Barrel,%)	70	71	69	68	67	0.91	2.36	-8.36	-37.60
	Gold ($/Troy Ounce,%)	1,993	1,970	1,940	1,979	1,989	2.75	3.85	8.26	2.97
	구리($/Metric ton,%)	8,889	8,889	8,758	8,698	8,580	1.50	4.35	-2.77	-13.66

	1Week (%,%P)			1Month (%,%P)			PER (배)	
Global Company Performance	해외	국내	Gap	해외	국내	Gap	해외	국내
Intel/삼성전자	-3.81	4.01	-7.82	5.14	-0.64	5.78	-	7.74
Micron Technology/SK하이닉스	8.43	12.03	-3.59	3.95	-4.32	8.27	7.60	16.11
Philips/LG전자	-0.66	-4.85	4.19	-5.23	-1.32	-3.91	21.44	19.19
NTT Docomo/SK텔레콤	0.00	1.27	-1.27	0.00	6.94	-6.94	11.71	11.31
Google/NAVER	5.14	3.50	1.63	12.34	-6.85	19.19	21.56	40.96
Toyota/현대차	-0.17	3.74	-3.90	-6.07	1.29	-7.36	8.69	6.16
Nippon Steel/POSCO	0.57	1.86	-1.29	-2.52	-4.91	2.39	3.77	6.86
Exxon Mobil/SK이노베이션	2.36	0.00	2.36	-7.07	0.00	-7.07	7.36	8.55
Singapore Airlines/대한항공	0.35	1.79	-1.44	-1.73	-2.99	1.25	-	4.87
Mitsubishi Heavy/현대중공업	1.10	1.66	-0.55	-9.33	-11.87	2.54	16.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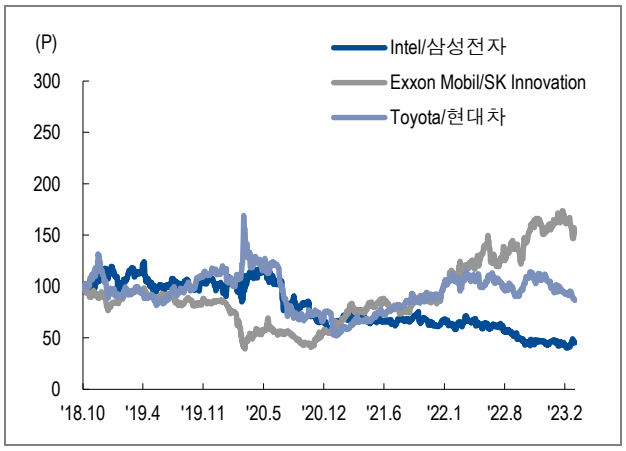
주: 해외=해외주식의 수익률, 국내=국내주식의 수익률, Gap=해외와 국내주식의 수익률의 차

Global Commodities Price Trend



자료: Bloomberg, Dramexchange

Global Company Relative Performance



자료: Bloomberg

<종목 투자등급 (Stock Ratings)>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Buy(15%초과), Hold(-15%~15%), Sell(-15%미만)로 구분
- 본 조사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